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4.6%·이재명 23.3% '접전'

與 전당대회 전 조사...대표 당선 컨벤션 효과 미반영 이낙연, 넉 달 연속 하락세...이재명, 석 달 연속 상승세 3위 윤석열 11.1%·4위 안철수 5.9%·5위 홍준표 5.0%

2020년 8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6%, 이재명 경기지사는 23.3%를 기록했다. 1.3%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는 지난 7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5.6%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1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최근 넉 달 연속 선호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8·29 전당대회 이전 실시돼 이 대표의 컨벤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20%대에 올라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사는 선호도 조사에서 23.3%를 기록해 1위인 이 대표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1.3%포인트로 좁혔다.

이 대표는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선호도가 47.5%에서 41.7%로 5.8%포인트

내렸다. TK(대구·경북), 경기·인천, PK(부산·울산·경남), 40대 이하,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도 하락했다.

이 지사는 거의 모든 계층에서 선호도가 상승했다. 호남에서 선호도가 17.0%에서 26.3%로 9.3%포인트 상승했다. 충청권, 서울, 30대와 60대에서 선호도가 올랐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5.3%포인트, 보수층에서 4.0%포인트 상승, 중도층에서 3.9%포인트 상승 등 전 이념계층에서 모두 상승했다.

3위는 11.1%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지했다.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난 조사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1.0%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0.8%포인트 하락한 5.0%로 5위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0.4%포인트 상승한 4.7%로 6위를 기록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9%), 원

희룡 제주지사(2.4%), 추미애 법무부장관(2.1%), 심상정 정의당 대표(2.0%),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2.0%), 김경수 경남지사(1.8%)가 뒤를 이었다.

새로 후보군에 포함된 김중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를 차지했고, 김부겸 전 의원은 1.0%를 받았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5.9%, 모름·무응답은 2.4%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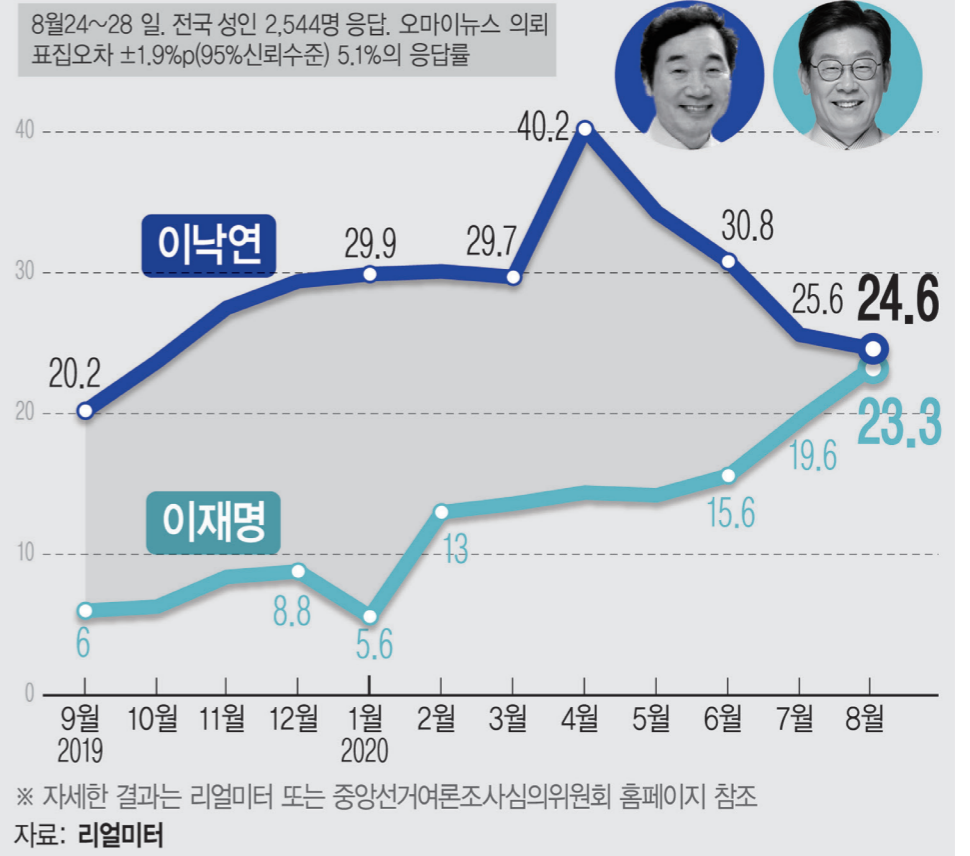
법진보·여권 주자군(이낙연·이재명·추미애·심상정·임종석·김경수·김부겸)의 선호도 합계는 지난 조사보다 3.0%포인트 오른 56.9%, 법보수·야권 주자군(윤석열·안철수·홍준표·오세훈·황교안·원희룡·김중인)은 4.4%포인트 내린 33.2%였다. 양 진영 간 격차는 16.3%포인트에서 23.7%포인트로 벌어졌다.

한편 현재 선호하는 인물을 차기 대선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지를 물은 결과 '지지 인물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0.7%, '다른 인물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응답은 44.3%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5.1%였다.

이 대표 선호 응답자의 66.8%, 이 지사 선호 응답자의 51.7%, 윤 총장 선호 응답자의 63.9%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차기 대선주자 1·2위 선호도 (단위: %)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4만9831 수준에서 ±1.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명에게 접촉해 최종 2544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 5.1%)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뉴시스

통합, 새 당명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의결... '4연임 금지' 제외

당명 개정 위한 상임전국위 당명 원안 그대로 상정·통과

미래통합당이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상정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시·도당 위원장, 일부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상임전국위는 새 당명 최종 후보군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힘'을



경우택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의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안대로 추진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놓고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자, 비대위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상정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 국민 눈높이 결산심사에 대안제시까지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지적과 참신한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예결 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 "(갱생, 직업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 후원금·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와 관련하여서는 불필요한 경비 집행에 주의를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 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경비의 경우 스마트 워크센터 등 경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작년 행정 법제 혁신추진단 자문위원회의 28회의 회의 중 26회를 사실기관에서 가져 회의장 임차료로 약 2천 2백만원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19년 예산내역 중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재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이마저도 인사발령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심사에서는 '판사 인력 총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예산 불용액규모를 줄일 것을 지적했다. 2019년 결산내역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를 일반 인건비 항목의 불용액은 전부 289억 7천만원이다. 2018년 결산에서 57.6억원이 불용액이었는데 1년 사이에 불용액 규모가 231억원 이상 늘어났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훈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

